

'세기의 담판' 오늘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관전포인트 '세가지'

완전한 비핵화 · 차기 회담 · 종전 선언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비핵화 회담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북 완전한 비핵화 수용...CVID-CMIG 접점 찾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측의 CM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의 접점을 찾는 지 여부가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 핵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반출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초기에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따라서 미국은 비핵화 합의문에 어떻게든 'CVID'와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절차나 시한 등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괄타결을 요구해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사찰·검증·이행보상까지 시간표를 정밀하게 짜서 비핵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한 모습을 11일 보도했다. (사진 왼쪽, 출처=북한 노동신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싱가포르를 방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피아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北 김정은 - 美 트럼프, 통 큰 합의 이뤄낼 지 주목

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통 큰 결단'을 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나, 포괄적 비핵화에 방점이 있고, 핵무기나 ICBM 미사일 샘플분리해서 반출하는 문제가 협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아직 북미 간 접점이 안착이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북미 간 후속회담 열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과정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며 여러 차례 후속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원포인트' 협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핵화 초기 조

치와 사찰, 검증, 이행 이에 따른 미국의 보상 조치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담고 구체적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 등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다음달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트럼

프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교수는 "내일 북미정상 간에 통 큰 결단에 의한 타협으로 나올지, 상호 간에 입장이 덜 좁혀질 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북미 정상 간에 합의로 일단 마무리 될지,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차기 회담에 대해 북미가 낱짜를 못박거나 계약적으로라도 북미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가능성 촉각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종전 합의'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 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효용성이 떨어진다. 얘기가 있지만 전세계를 향해 핵심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북미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만약 북미 간에 극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하고 실제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추후로 미룰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25 전쟁 종전 65주년인 7월 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2차 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 때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시스

자연재해로부터 완벽한 농토 보호

김중희 의원, 배수개선사업비 343억원 신규 확보

국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제·부안)이 자연재해로부터 완벽하게 농토를 보호할 배수개선사업비 343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1지구(185ha)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해 곧 조사가 착수된다. 기본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면 오는 2020년부터 동진 1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비가 137억원 추가 확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관계자는 "봉남과 백학, 마포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비는 올해부터 당장 투입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토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논을 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추미애, 싹쓸이 김칫국 마셔 매일 막말”

조배숙 평화당 대표 “추, 청년들이 이상한데 관심...” 지적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싹쓸이 김칫국을 너무 마셔서인지 매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1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추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너무 심한 발언을 여러가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10일)는 청년들이 이상한데 관심이 있다면서 어깃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청년들이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건가. 다른 후보를 찍으면 어

깃장을 놓는 건가. 그리고 어깃장을 좀 놓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만 찍으라는 것인가. 추 대표는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손을 잡고 '엄지척'을 했다. 안희정 전 지사 미투사건 때에는 두 딸 보기 부끄럽다더니 이재명 후보의 여성 인격살인이 만천하에 폭로됐는데 함께 엄지척하는 것은 안 부끄럽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추 대표는 평화당이 겨 자씨만름 협조 안한다고 했다. 다른 건 제쳐두고 평화당 아니면 추경안이

통과됐잖나. 아니면 옛것에 일이 기억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건가”라며 “그리고 (추 대표는) 야당 당명을 의우기도 귀찮아 한다. 공공연하게 귀찮다고 하는 마당에 야당이 협조할 마음이 생기겠나.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추 대표는 어제 '쌀밥 지었는데 돌이 있으면 밥을 다 버려야한다'고 했다. 야당을 돌 취급한 것이다. 오만의 극치”라며 “그런데 쌀밥을 너무 좋아하다간 영양실조에 걸린다. 추 대표는 한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협치의 결립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근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수혁 의원, KBS 특집대담 출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통이며 북핵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국회의원이 '북미정상회담'을 진단하는 KBS 생방송 특집대담에 출연한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북미회담 직후인 12일 오후 10시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국회의원이 KBS 1TV 특집대담 프로그램인 '세기의 북미회담, 한반도 비핵화시대 열리나'에 출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의미, 성과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생방송 특집프로그램이다. /정승=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